

Hydro, 세계 비료 시장점유율 강화

질소시장 독보적 존재로 매출 35억달러 ... 유럽매출 둔화 타개 부심

Norsk Hydro가 유럽 이외의 지역에 비료 생산능력을 대규모 증설할 계획이어서 식물 영양성분 사업 분사의 전 주축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물 영양성분 사업부인 Hydro Agri의 3억달러 비용절감 프로그램을 2001년 완료해 세계시장 신장률 재고의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Norsk Hydro는 질소 생산기업으로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견비해 연평균 매출이 약 35억달러인 세계 비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칼륨 및 인 공급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분을 확보하고 제3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형 질소 생산능력과 결합시켜 전 세계에 NPK Blend를 공급할 계획이다. Norsk Hydro는 칼륨 및 인 생산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말 몇년에 걸쳐 적자를 기록한 뒤 향후 2년 동안 수익이 10-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 제품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타 비료 생산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세계 주요 지역의 NPK Blend 및 Granulation 플랜트에 공급하고, 주문생산 조성으로 지역 농업 수요를 충당할 계획이다.

매출의 45%를 차지하는 유럽시장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식물 영양성분 부문이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을 겨냥하고 있다.

소액지분 보유방식을 통해 Saskatchewan(PCS)의 Potash 등 대형 칼륨 및 인 생산기업과의 제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ydro Agri의 경영진은 알루미늄 사업을 매각한 후 최종적으로 비료사업을 분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독일의 에너지 그룹인 E.ON의 알루미늄 자회사인 VAW를 31억유로(28억달러)에 인수하는데 합의했다.

알루미늄 및 비료 사업을 분사하고, 석유 및 가스 사업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한편, 인디아 정부는 Assam의 Namrup 소재 Ammonia-Urea 콤플렉스의 운영을 위해 신규법인인 Bharmaputra Valley Fertiliser(BVFC)를 설립했다.

현재는 적자를 내고 있는 Hindustan Fertiliser(HFC)가 증설 및 운영하고 있다. 콤플렉스는 조만간 HFC에서 BVFC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BVFC는 콤플렉스의 증설을 감독한다.

2월말까지 3개 플랜트의 암모니아 및 요소 생산능력이 각각 연산 23만톤과 36만톤에서 33만2000톤과 53만톤으로 확대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2/ 26>